

‘당구 여제’ 피아비 꺾고 군산 출신 강지은 우승

결승서 4-1 완파...LPBA 챔피언십 두번째 정상에



‘휴온스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스롱 피아비를 꺾고 우승한 강지은. <PBA 제공>

전북 군산 출신인 강지은(29·크라운테)이 2년 2개월 만에 여자프로당구(LPBA) 정상에 섰다.

강지은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오양에서 열린 ‘휴온스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스롱 피아비(31·블루원리조트)를 세트 스코어 4-1(11-6 11-10 4-11 11-7 11-8)로 꺾었다.

이로써 강지은은 2019-2020시즌 4차전 ‘TS삼푸 LPBA 챔피언십’ 첫 우승 이후 2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LPBA 최다 우승 기록도 이미래(4회), 임정숙(3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우승상금 2000만원과 랭킹포인트 2만점도 받았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블루원리조트 LPB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5개월 만에 우승을 노렸던 피아비는 준우승에 만족했다. 600만원과 1만점을 챙겼다.

강지은은 1세트에서 하이런 5점을 앞세워 11-6

(14이닝)으로 이긴 뒤 2세트도 11-10(10이닝)으로 힘겹게 잡아내 절반의 고비를 넘겼다.

피아비에게 3세트를 내주고 잠시 숨을 고른 강지은은 4세트에 다시 하이런 6점으로 11-7(16이닝)로 이긴 뒤 5세트에 벅스 2개 포함 하이런 9점으로 단 5이닝 만에 11-8 승리를 우승을 완성했다.

강지은은 준결승전에서도 오수정에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첫 세트를 11-4(7이닝) 승리로 챙긴 강지은은 2세트 역시 11-4로 승리했다. 여세를 몰아 4세트를 11-9로 차지하며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강지은은 지난 2019년 LPBA투어 4차전 TS삼푸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 LPBA 20대 최초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스무살에 친구들과 우연히 함께 놀러 간 당구장에서 매력을 느껴 당구에 입문한 강지은은 동호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2월 당구선수로 나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박정환, 농심신라면배 바둑 연습 도전

26일 중국 판팅위와 대결

한국 바둑랭킹 2위 박정환 9단이 제23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에서 연습에 도전한다.

박정환은 26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대회 2라운드 제5국에서 중국의 강호 판팅위 9단과 대결한다.

그동안 박정환은 농심배에서 대부분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로 출전했지만 지난달 열린 1라운드 대국에서 전적 2번 주자로 출전했다.

대회 초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목진석 국가대표팀 감독의 승부수였다.

박정환은 기대대로 1라운드 마지막 대국인 제4국에서 일본의 쉬자위안 9단을 제압했다.

한국은 박정환의 활약 덕에 1라운드 대국 결과 2승 1패로 앞섰고 중국이 1승 1패, 일본은 1승 2패를 기록했다.

박정환은 42일 만에 재개되는 2라운드에서 대

회 주도권을 놓고 판팅위와 대국한다.

판팅위는 역대 농심배에서 두 번이나 7연승을 거두는 등 통산 17승 6패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인다.

7연승은 농심배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다.

그러나 통산 상대 전적은 박정환이 10승 6패로 앞서있다. 농심배에서도 세 번 만나 박정환이 모두 승리했다.

농심배 2라운드는 30일까지 5판이 펼쳐진다.

우승팀이 결정되는 마지막 3라운드는 내년 2월 열린다.

농심배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다.

우승상금은 5억 원이다.

또 3연승하는 기사에게는 1천만원의 연습상금을 준다. 이후 1승 추가 때마다 1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대회 축소한 광주 검도인들의 ‘훈훈한 선택’

대회 후원금 등 1400만원 어려운 도장 20곳에 전달

“검도인들이 심시일반 정을 나누고 화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최근 열린 제26회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에서 광주지역 공인검도관과 센터에 도장 활성화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광주 시검도회 최용훈 명예회장이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유당문화재단에서 대회 개최를 위해 후원한 2000만원이다. 애초 전역 대회에 쓰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돼 1400만원이 절약되자 이를 어려운 광주지역 도장 20곳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제이케이상사 김인섭 대표는 광주지역 공인도장, 육성팀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3만장을 지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검도회 최용훈 명예회장이 최근 열린 제26회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에서 광주 공인검도관과 센터에 도장 활성화 지원금을 전달하고 코로나 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 검도회 제공>

우승 상금 214억원

PGA투어 내년 플레이오프 총상금 7500만달러로 증액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년에는 선수들에게 돈벼락을 안길 태세다.

PGA투어는 플레이오프 보너스 총상금을 종전 6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23일(한국시간) 골프위크가 보도했다.

총상금 증액에 따라 우승 상금도 올해 1500만 달러(약 178억원)에서 1800만 달러(214억원)로 올라간다.

플레이오프 상금은 시즌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이 끝나고 페덱스컵 랭킹 포인트 순위에 따라 나눠준다.

선수 성적뿐 아니라 선수들의 인기를 척도로 지급하겠다는 ‘선수 영향력 보너스’ 총액도 예초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라간다. ‘선수 영향력 보너스’ 1등 상금은 8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플레이오프 이전 정규 시즌 성적을 토대로 상위 10명에게 주는 ‘컴캐스트 비즈니스 투어 톱10’ 보너스 상금도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올린다.

PGA 투어 대회에 시즌 15개 대회를 출전하면 5만 달러를 별도로 지급하는 ‘15경기 출전 보너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PGA 투어는 내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을 2000만 달러(238억 원)로 올리

기로 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말고도 개별 대회 상금도 증액된다.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과 BMW 챔피언십 총상금은 11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올라간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메모리얼 토너먼트,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등 3개 인비테이셔널 대회 총상금도 1천50만 달러에서 1천200만 달러로 올라갈 예정이다.

PGA 투어가 유럽,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과 공동 주관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대회 역시 총상금이 1200만 달러로 증액된다.

이렇게 PGA 투어가 선수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을 기부한다는 이른바 ‘슈퍼골프리그’에 정상급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상금 증액 계획을 선수들에게 메모를 통해 알린 제이 모너한 PGA 투어 커미셔너는 “우리 계획은 최정상급 선수뿐 아니라 선수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최정상급 선수 40여 명만 출전시켜 거액의 상금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짜여질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후원 슈퍼골프리그와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고진영 세계 2위 유지

1위 코다와 0.13점 차

고진영(26)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는 2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22일 자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와 같은 2위를 유지했다.

다만 1위 넬리 코다(미국)와 간격은 불과 0.13점 차이로 줄었다. 지난주에는 0.95점 차이였다.

고진영은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LPGA 투어 2021시즌 올해의 선수와 상금 부문 2위였던 고진영은 이 우승으로 올해의 선수와 상금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던 코다를 제치고 1위로 시즌을 마쳤으나 세계 랭킹은 아직 코다가 1위를 지켰다.

지난주 코다가 9.98점, 고진영 9.03점이었던 랭킹 포인트는 코다가 10.07점, 고진영 9.94점으로 변했다.

올해 LPGA 투어가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종료돼 2022년 1월 다음 시즌 개막 전까지 순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민비(33)와 김세영(28)이 3, 4위고 김효주(26)가 9위에 올라 한국 선수 4명이 10위 내에 포진했다. 이정은(25) 17위, 박민지(23) 20위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수영 천재’ 황선우 첫 도전 평영서 고등부 2위

자유형이 주 종목이지만 개인혼영 한국 기록도 보유한 ‘수영 천재’ 황선우(18·서울체고·사진)가 처음 도전한 평영에서는 고등부 2위를 차지했다.

황선우는 23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사흘째 남자 고등부 평영 100m 경기에서 1분03초73의 기록으로 1조 5명 중에서는 1위, 2조까지 전체 13명의 출전 선수 중에서는 조현재(전북체고·1분02초96)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장태광(경기체고·1분04초41)이 3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 결승 없이 타임레이스로 한 차례 레이스만 펼쳐 순위를 가린다.

남자 평영 100m 한국 기록은 조성재(제주시청)가 올해 5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59초65다.

황선우가 대회에서 평영 경기를 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선우의 주 종목은 자유형 100m와 200m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47초56), 자유형 200m에서 한국 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1분44초62)을 가지고 있다.한 선수가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으로 해엄처 시간을 다투는 종목인 개인혼영 200m에서도 현재 한국 기록(1분58초04)은 황선우 것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유체이탈자
2관	장르만 로맨스
3관	유체이탈자, 디어 에반 헨슨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5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6관	유체이탈자
9관	이터널스
7관 씨네케틀	연애 빠진 로맨스, 송해 1927, 후켓츠 웨슬러, 메이드 인 이태리
8관 씨네케틀	툰, 강릉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